

지역 소식통

김제시, 농업업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김제시는 농업업무담당 공무원 45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1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 첨단농업 육성과 행복한 농촌만들기 등 대한민국 농업수도의 위상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내 주요 농업시설 견학 등을 통한 역량강화로 진행됐다.

교육참가자들은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백구면) △민간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아름(공덕면) 견학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적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근무지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인 몸과 마음에 피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농업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청사진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해 우리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봉면 사랑애포(애)

김장담그기 사전 준비

김제시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곽규관)는 '사랑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오는 11월 13~15일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랑에 김장담그기' 행사는 올해 12주년을 맞는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8월부터 배추 700포기를 행정복지센터 인근 뒷밭에 재배하여 정성스럽게 가꿔 왔다.

지난달 27일 월례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김장용 배추 수확과 절임, 고춧가루, 마늘 등 각종 양념 재료 준비 등 행사를 위한 준비 사항을 논의하였다. '사랑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만들어질 김치는 진봉면 내 경로당 및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액 마을공동체 수익금으로 비조합원까지 지급

새로운 마을연금 모델 '화제'

완주 평치마을공동체, 75세 이상 어르신 15명에 매월 5만원씩

외부의 지원 없이 100% 마을공동체 수익금으로, 그것도 비조합원 어르신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마을연금 모델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31일 오후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치마을공동체 마을연금 지급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마을연금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조한승 비봉우리공동체부영농조합법인 대표, 윤공순 평치마을 이장, 비봉면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마을연금 지급 개시를 축하했으며, 조한승 대표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연금 지급 주체인 비봉우리공동체부영농조합법인은 지역에서 재배된 우리콩을 활용한 두부, 콩물과 찌꺼류 즉석식품 등을 생산하는 완주군 우수마을기업으로, 2011년 마을법인 설립 후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북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 16개소 거래처에 출하하며 꾸준한 매출 신장을 이뤄 올 들어 현재 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성장한 이 법인은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평치마을 내 75세 이상 어르신 15명에게 매월 5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금지원은 100% 전액 마을공동체 수익금에서 충당하는 등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마을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점에서 마을연금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지급을 시작으로 매월 말일에 연금을 지급하는 '평치마을 모델'은 수급인원(15명)의 70% 이상(11명)이



완주군은 지난 31일 오후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치마을공동체 마을연금 지급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마을연금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조합원인 등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까지 혜택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외부 지원 없이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비조합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 일 이어서, 연금 명칭도 기존의 '마을자치연금'과 달리해 '마을연금'이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부의 지원 사업 없이 주민 스스로 디자인한 마을연금이라는 새로운 평치마을 모델을 통해 마을연금이 지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승 비봉우리공동체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과제를 마을연금으로 풀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중단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

과 함께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기업인 비봉우리공동체(영)는 지난 2010년 완주군 참살기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자원인 콩을 활용해 두부류를 생산,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며 2013년에 매출액 1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17년 3억 원, 올해는 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매출신장을 이뤄왔다.

평치마을 가구(32가구)의 절반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이 법인은 2018년에 전북도의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지정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행안부의 우수마을기업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6월에 완주군 1호(전국 2호) 도계마을 자치연금 지급 개시를 선포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32명에게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책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광수 부시장 주재로 지표 담당 팀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합동평가 실적향상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국가위임사무, 국정주요시책 등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로 김제시는

정량지표 54개, 정성지표 20개 등 총 64개의 지표로 평가받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무에 직접 관여하는 각 지표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54개 정량지표 중 실적 하위 지표 11건에 대해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지표간 업무달성도를 공유하는 등 연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김광수 부시장은 2022년도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과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기획감사실은 매달 실적을 점검하고 지표 담당자 교육 및 하위지표 부서 방문 독려 등 2022년 합동평가 도내 우수 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김제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김제시는 올해 가을철 고온 건조한 날씨와 광년보다 적은 강수예보로 인해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김제시는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위해 8개조 50명으로 편성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주·야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산불발생에 신속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와 임도 주변, 산불취약 지역에 산불감시원 46명을 배치해 임산객의 화기 소지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가을철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지의 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간오지 등에 5대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와 8개소의 산불감시초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 인접지 마을주민, 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 기동단속 및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소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으며,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임산객들로 인해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이 많이 나는 주요 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임산물 무단채취자 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일 '2022 김제 그랜드취업박람회'

김제지역 기업 34개 참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구인·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인 2022 김제시 그랜드취업박람회를 오는 11월 2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관내 34개 기업이 참여하여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고, 참여기업 외에도 구인 특색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적극 홍보하여 구직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예정이다.

또한 채용면접 버스, 구인 정보제공

및 취업컨설팅관, 사업설명회관, 창업지원부스, 이벤트관(타로, 퍼스널 컬러, 증명사진) 등 다채로운 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김제시의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구인·구직자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김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친환경 ESG 관광상품 발굴

완주군, 오늘 '구이저수지둘레길' 스탬프 투어 개시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완주군이 친환경 ESG 관광상품 발굴에 나섰다. 완주군은 남부권역 대표 관광지인 구이저수지둘레길과 대한민국술테마 박물관(이하 술박물관)을 연계한 스탬프투어를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투어 상품은 술박물관이 2022년 전북 강소형관광지로 선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박정웅)가 지원해 양 기관이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

구이저수지둘레길은 모악산과 경각산 사이에 형성된 구이저수지 주변에 만들어진 트레킹 코스다.

총 둘레 8.8km에 수변데크길, 소나무 등산길, 대나무 숲길 등으로 조성돼 있어 맑은 호수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산책길로 많은 도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탬프투어는 총 4개 지점을 걸으면서 스탬프북 용지에 인증도장을 찍어서 투어 인증을 남기면 된다.

1지점은 구이농협 옆 저수지 둘레길



시작점, 2지점은 구이저수지 모악길, 3지점은 경각길, 4지점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2층 전시관 입구이다.

스탬프북은 구이면 행정복지센터와 술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2개 지점을 완주한 하프코스 완주자 200명과 4개 지점을 모두 완주한 풀코스 완주자 100명에게는 각각 군 농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념품 수령은 스탬프북 인증서를 지참하여 술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받으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